# 통계로 본 서울시민의 나눔문화

## - 자원봉사 및 기부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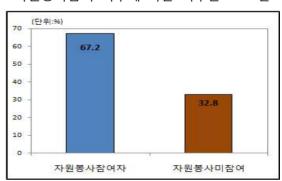
- O 서울시민의 자발적 나눔 방식의 변화 및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나눔 문화 확산 및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작성함.
- 내용구성은 나눔활동인 자원봉사 및 기부에 대한 참여여부, 나눔활동 동기, 비동참 이유, 나눔활동 형태의 변화, 향후 참여 의사 등에 대한 서울시민의 나눔활동 특성을 진단해 보고, '서울 연구원 및 여성정책연구원' 등의 논문을 참고하여 나눔문화 활 성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았음.
- O 서울의 나눔 활동 특성은 서울서베이(서울시) 및 사회조사(통계청) 자료를 분석하여 진단해 보았음.
  - 2011 서울서베이(서울시) : 서울거주 만 15세 이상 약 45,605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2011.11.1~11.30. 동안 가구방문면접 조사함.
  - 2011 사회조사(통계청) : 서울거주 만 13세이상 약 4천5백여명을 대상으로 2011. 7.15~29일 동안 가구방문면접 조사함.
- ※ 조사대상, 표본규모 및 설계 방법 등을 달리하는 타기관의 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, 통계마다 연령기준이 다르므로 자료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람.
- 서울통계홈페이지(stat.seoul.go.kr)를 통해 대시민 서비스(2012년 12월 13일)하고, 통계가 이용고객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.

- 나눔활동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1년도에는 전년대비 감소
- 자원봉사참여율(23.0%)이 기부경험률(40.7%)보다 저조
-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우 기부할 가능성 높아, 참여자 기부율(67.2%)이 미참여자(32.8%)의 2배수준
- \* 헌신과 시간을 요구하는 저조한 자원봉사참여율을 끌어올려 자원봉사에 기반한 기부문화 확산 전략 필요
- □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나눔활동이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□ 또한, 자원봉사참여율이 감소한 년도에는 기부율도 감소하였고, 자원봉사 참여율이 증가한 년도에는 기부율도 증가하고 있어, 자원봉사참여율과 기부율은 비슷한 추세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  - 15세이상 서울시민의 자원봉사참여율은 2005년 13.4%에서 2006년 12.5%로 감소하였으나, 2007년에는 17.7%로 증가하였다. 이후 2010년 24.6%까지 증가하다 2011년 23.0%로 소폭 줄었다.
  - 15세이상 서울시민 기부율(기부경험률)은 2005년 37.9%에서 2006년 33.5%로 하락 하였으나, 2007년 36.5%로 증가하였다. 이후 2010년 45.8%까지 증가하다 2011년에 는 40.7%로 줄었다.
- □ 2011년 자원봉사참여시민은 67.2%가 기부를 했지만 미참여자는 32.8%만이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나, 자원봉사참여자의 기부율이 미참여자에 비해 34.4%p 더 높았다. 이는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우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.

< 자원봉사 참여율 및 기부 참여율 추이 >



< 자원봉사참여 여부에 따른 기부율 2011년>



\* 자료 : 서울시, 「서울서베이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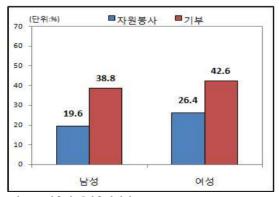
- 자원봉사참여율 : 15세이상 서울시민 중 지난 1년간 (2011년 통계는 2010.11.1~2011.10.31)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시민 비율

(자원봉사활동분야 : 환경보전, 자녀교육, 아동·청소년·노인·장애인·재소자·노숙자 등 사회적약자계층, 기타 일반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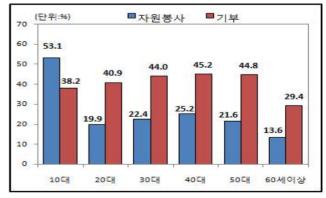
- 기부율(기부경험률) : 15세이상 서울시민 중 지난 1년간 기부경험(ARS 전화모금방식, 현금직접, 지로용지나 온라인 이용 송금, 물품기부 중 1개 이상)이 있다고 응답한 시민 비율

-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있는 10대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고,
- 30~50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부율 높은 편
- \* 10대의 자원봉사활동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미래의 나눔문화 확산의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하고, 30~50대의 경우 가족동반 나눔활동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나눔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 모색 필요
- □ 나눔활동 실천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.
- 남성의 자원봉사참여율은 19.6%이고, 여성은 26.4%로 여성의 자원봉사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높다.
- 남성의 기부율은 38.8%이고, 여성은 42.6%로 여성의 기부율이 남성에 비해 약간 높다.
- 남성과 여성의 자원봉사참여율 격차가 6.8%p인 것에 비해 기부율 격차는 이보다 낮은 3.8%p이다.
- □ 연령별로 보면 자원봉사참여율은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있는 10대가 가장 높고, 기부율은 30~50대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- 연령별 자원봉사참여율은 교육과정에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10대가 53.1%로 가장 높다. 뒤이어 40대와 30대, 50대가 각각 25.2%, 22.4%, 21.6%로 20%를 약간 넘고 있는 수준이다.
- 연령별 기부율은 자원봉사참여율이 가장 낮은 60대가 29.4%로 가장 낮다. 기부참여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, 50대, 30대로 각각 45.2%, 44.8%, 44.0%이다.
- 20대는 대학생활과 취업준비 등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눔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.

### < 2011년 성별에 따른 나눔활동 >



< 2011년 연령별에 따른 나눔활동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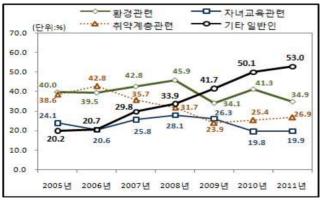


\* 자료 : 서울시, 「서울서베이」

- 연령: 10대(15~19세), 20대(20~29세), 30대(30~39세), 40대(40~49세), 50대(50~59세), 60세이상

- 기타일반인대상 봉사가 점차 증가하여 '09년부터 가장 참여율 높이짐. 자원봉사활동분야 변화
- 기부방식에서는 ARS 이용 가장 선호, 물품기부 증가추세로 지로 온라인송금보다 많아져
- \* 전문적지식, 재능, 문화 기부 등 활성화 필요
- □ 자원봉사활동분야를 '환경보전', '자녀교육', '아동, 청소년, 노인봉사 등 사회적 약자계 층', '기타 일반인'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참여율(복수응답) 추이를 보면, 자원봉사참여 자 중 기타 일반인에 대한 참여율이 53.0%로 가장 높고, 환경보전 34.9%, 아동, 청소년, 노인분야 등 사회적약자계층 봉사 26.9%, 자녀교육관련 19.9% 순으로 나타났다.
  - 특히, 자원봉사참여자 중 2005년 20.2%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던 기타 일반인 봉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53.0%를 차지하였고, 사회적 취약계층관련 봉사 참여율이 '09년(23.9%) 이후 2년 새 소폭 증가하여 '11년 26.9%를 차지하고 있으나, '05년(38.6%)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  - 자원봉사자의 참여횟수로는 1~2회 참여비율이 '05년 36.8%에서 '11년 49.9%로 증가, 5회이상은 '05년 43.2%에서 '11년 27.5%로 줄었으며, 3~4회는 '05년 20.0%에서 '11년 22.6%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.
- □ 기부경험자 중 선호하는 기부방식(복수응답)으로는 ARS 이용 기부가 60.0%로 가장 높고, 현금 직접기부(30.9%), 물품기부(15.6%), 지로용지나 온라인송금 기부(11.7%)로 나타났다.
- 지로용지나 온라인을 이용한 송금 기부는 줄고, 물품기부가 증가하는 추세로 '11 년 처음으로 물품기부가 송금기부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.

### <자원봉사 활동분야별 참여율 : 자원봉사참여자 중 복수응답>



< 기부방식: 기부경험자 중 복수응답>



- \* 자료 : 서울시, 「서울서베이」
- 자원봉사 활동분야 : 귀하는 지난 1년동안(2010.11.1~2011.10.31)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적이 있으시면 어떤 분야에 참여하셨습니까? (참여한 분야 각각에 응답, 복수응답)
  - 1. 환경보전 관련: 마을청소, 한강쓰레기 건져내기, 산에 쓰레기 줍기 등
  - 2. 자녀교육 등과 관련 : 일일교사, 교통지도, 급식보조 등
  - 3. 사회적 약자 계층 관련 : 아동, 청소년, 노인, 장애인, 재소자 등과 관련하여 복지시설, 병원, 개인가정봉사, 야학교사 등
  - 4. 기타 일반인을 위한 봉사 관련 : 무료상담, 헌혈, 무료진료, 무료 이미용, 안내나 통역 등 행사지원, 재해지역 돕기 등

### 「통계로 본 서울시민의 나눔문화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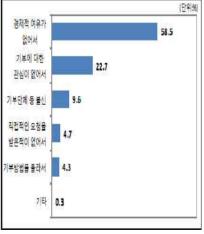
- 서울시민이 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'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(43.2%)'가 1위.
-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는 '경제적 여유가 없어서(58.5%)', '기부에 관심이 없어서(22.7%)'
-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'모범적 기부증대(55.4%)', '자금운영 투명성 확보(21.6%)'
- \* 나눔백사(기부백사) 등을 발견하여 기부인식제고 및 투명성 성취감 등을 열리고 나눔문화 확신을 위한 기초인프라로 활용 필요
- □ 2011 사회조사에 따르면, 13세이상 서울시민이 기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'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'라는 이유가 43.2%로 가장 많았고, 이어서 '기부단체나 직장,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요청 받아서'(23.1%), '개인적 신념때문'(17.8%)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.
- 본인이 기부를 한 현금이나 물품이 어떤 분야에 쓰이기를 희망하는지 물은 결과(복수응답), 13세이상 기부시민 중 83.1%가 사회복지분야에 쓰이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다.
- □ 201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, 지난 1년동안(2010.7.15~2011.7.14)기부한 경험이 없는 13세이상 서울시민들 중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로 '경제적 여유가 없어서'가 58.5%로 가장 많고, '기부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(22.7%)', '기부단체 등 불신(9.6%)'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- □ 2011 사회조사에 따르면, 13세이상 서울시민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'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 기부 증대'(55.4%)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, 이어서 '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'(21.6%), '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' (15.6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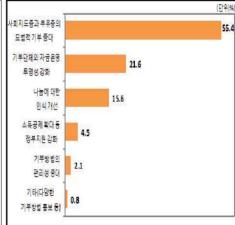
< 기부경험자 중 기부 이유 >

<기부하지 않는 이유>

<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>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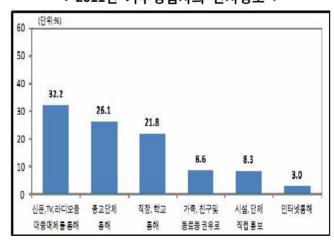
- \* 자료 : 통계청,「2011 사회조사 : 조사대상 13세」, 국가통계포털(KOSIS)
  - 기부이유 : 기부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률(기부경험자 중)
  - 기부희망분야 : 기부하신 현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떤 분야에 쓰이기를 희망합니까?(중복응답)
  -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 : 기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률(기부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시민 중)
  - 기부문화확산 :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- 자원봉사 참여자의 인지경로는 '직장과 학교'가 53.5%로 절반 이상 차지
- 기부대상자의 기부경로는 '신문,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(32.2%)', '종교단체(26.1%)' 등
- \* 나눔 활동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필요
- □ 자원봉사참여자는 절반 이상인 53.5%가 직장과 학교를 통해 인지하였으며, 다음으로 '가족, 친구 및 동료 등의 권유로'(16.6%), '종교단체를 통해'(15.2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- □ 기부대상자 중 기부경로는 '신문, TV, 라디오 등 대중매체'를 통해 인지한 경우가 32.2%로 가장 많았으며, 이어서 '종교단체 등을 통해'(26.1%), '직장 및 학교 통해'(21.8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  - 기부대상자 중 남성 기부대상 인지경로는 대중매체(30.8%), 직장 및 학교(25.9%), 종교단체(22.8%), 시설 및 단체의 직접홍보(9.5%), 동료 등의 권유로 (7.9%)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,
  - 여성 기부자의 인지경로는 언론매체(33.3%), 종교단체(28.9%), 직장 및 학교(18.2%), 가족, 친구 및 동료 등의 권유(9.2%), 시설 및 단체의 직접 홍보(7.2%)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
### < 2011년 자원봉사참여자의 인지경로 >

# 지장,학교를 통해 기존, 친구 및 동료 등의 권유로 등의 권유로 등의 권유로 등의 권유로 등의 권유로 등의 15.2 15.2 15.4 신문, TV, 라디오 등 대중매제를 통해 기타 인터넷 등을 통해 4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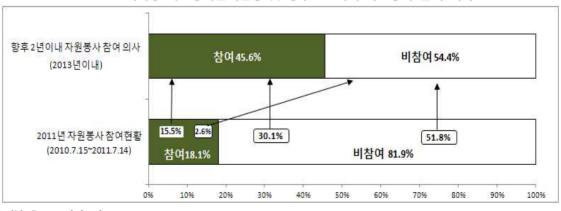
### < 2011년 기부경험자의 인지경로 >



- \* 자료 : 통계청,「2011 사회조사」, 국가통계포털(KOSIS)
  - 자원봉사참여자의 인지경로 : 13세이상 서울시민 중 자원봉사활동을 하셨던 단체 등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습니까?
  - 기부경험자의 인지경로 : 13세이상 서울시민 중 현금 또는 물품을 기부하셨던 단체나 개인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셨습니까? (기부 대상이 여러개일 경우 가장 많은 기부를 하셨던 단체나 개인을 기준으로 응답)

- 서울시민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지 높아
- 향후 2년이내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시민 45.6%
- 2년이내에 자원봉사참여율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수 있어
- \* 자원봉사참여자의 지속참여를 유도하고 미참여자의 참여 의지를 행동으로 이끌어 낼 방안 마련 필요
- □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 의사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. 이들의 참여의지를 행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, 향후 2년이내에 자원봉사참여율을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
  - ※ '서울서베이(서울시)' 조사에는 서울시민의 향후 자원봉사참여의사에 대한 조사문항이 없기 때문에 통계청 '사회조사'에서 조사된 '향후 2년이내 자원봉사활동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' 문항으로 서울시민 향후 자원봉사 참여의지를 살펴보았다.
- □ 이에 따르면, 2011년 13세이상 서울시민 중 지난 1년 동안(2010.7.15~2011.7.14) 자원봉사에 참여자는 18.1%, 비참여자는 81.9%로 나타났다. 향후 2년 이내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은 결과 45.6%(2011년 참여자 중 15.5%, 비참여자 중 30.1%)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여 향후 서울시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  - ※ 사회조사 자원봉사참여율은 만15세이상 2010.11.1~2011.10.31 동안의 자원봉사참여율를 나타내는 서울서베이 조사결과와는 차이가 있음.
- □ 자원봉사참여자의 지속 참여를 유도하고, 미참여자의 참여의지를 이끌어 낼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

### < 2011년 13세이상 자원봉사참여현황 및 향후 2년이내 자원봉사 참여 의사>



- \* 자료 : 통계청, 「2011 사회조사」, KOSIS
- 2011년 자원봉사활동참여 : 귀하는 지난 1년동안(2010.7.15~2011.7.14)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?(조사대상 만 13세이상)
- 향후 자원봉사활동 참여의사 : 귀하는 향후 2년이내에 자원봉사활동을 하실 의사가 있습니까?